

## 독도 사랑 실천을 위한 100일 간의 기록을 말하다?

- 청소년을 위한 독도를 비추는 거울 -



**양정고등학교 우리역사탐구반**

지도교사 : 이두형 선생님

참가학생 : 김슬빈, 원우솔, 강정훈, 김호진, 우시영

### 1.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증명할 수 있는가?

가. 역사 속의 독도

나. 한국과 독도

다. 지리 속의 독도

1) 독도의 위치

2) 계통지리학상 독도

라. 세계 속의 독도

마. 일본의 주장 및 반박

### 2. 시민 단체들의 자발적 독도 수호 노력

### 3. 양정의 노력

가. 활동의 장

나. 소통의 장

다. 탐구의 장

## 1.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증명할 수 있는가?

### 가. 역사 속의 독도

#### 1) 상고시대 ~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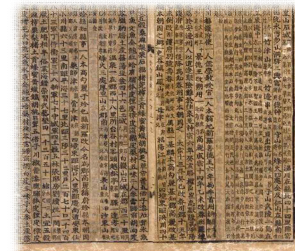
동해안에서 160km 이상 떨어져있는 도서지방이지만 울릉도는 사람이 거주한 역사가 깊다. 나리분지의 나리마을에는 청동기시대(BC 1000~300년)와 철기시대 전기(BC 300~1년) 고인돌 형태의 흔적(지석묘, 무문토기, 갈돌, 갈판)이 남아있다. 이후 울릉도에는 **우산국**(于山國)이라는 국가가 자리를 잡는다. 512년 신라 지증왕 때 하슬라주 군주 이사부가 입에서 연기가 나는 나무 사자상을 풀어 놓겠다는 겁박을 하며 우산국을 정벌한 기록이 사서에 남아있다. 즉 울릉도가 한반도 국가의 영토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512년부터이다. 이후 신라에 복속되어 있다가, 후삼국시대에는 독자적인 호족 세력이 자리를 잡아 고려에 조공을 바치고 관직을 받았다. 그런데 워낙 육지에서 떨어져 있다 보니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한 뒤에도 이러한 독립성은 더욱 강해져서, 이들은 다시 우산국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다. 하지만 이 우산국은 1018년에 동북여진족의 침략으로 결정적인 타격을 받았다. 이 때문인지 1032년에는 우산국에서 다시 호족 단위로 격하된 우릉성(羽陵城)이 고려 조정에 조공을 바쳤고, 115년 뒤인 1147년에는 고려의 명주도감창사 이양실이 사람을 보내 울릉도(鬱陵島)를 조사한 것으로 미루어 울릉도의 독자적인 정치체제는 이 기간 사이에 완전히 해체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1157년에는 고려 의종이 울릉도 개척에 관심을 보였다가 울릉도를 현지 조사한 김유립의 부정적인 보고에 논의를 중지하기도 했고, 최충헌도 한때 사민정책을 벌여 울릉도 개척을 시도했다가 풍랑에 실패하기도 했다. 그러나 울릉도에는 이러한 사민정책 이외에도 국가의 통제를 피해 자발적으로 들어가 산 사람이 있었고, 조선 초 편찬된 '고려사'에도 울릉도에 촌락 터가 7곳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사부-

#### 2) 조선시대 초기

고려 이후 들어선 조선은 지방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섬 지역에 대한 인구 쇄환을 단행했다. 울릉도도 예외가 아니어서 1425년(세종 7)에 김인우를 무릉등처 안무사로 삼고 울릉도로 들어가서 주민들을 설득하여 육지로 나오도록 조치했다. 바로 이러한 과정 속에서 기존의 무릉도(武陵島, 울릉도의 다른 표기)에 우산도(于山島)의 존재가 추가되었는데, 당초 우산도는 단순히 '우산국이 있던 섬'이라는 말 정도로 울릉도를 가리키는 또 다른 이름이었다. 울릉도의 공도를 위한 인구 쇄환은 4차까지 거듭되었고 이와 더불어 요도(蓼島)라는 섬의 존재를 탐문하는 일이 이어지면서 조선 조정은 차츰 동해에 있는 섬들의 존재를 실사해나가게 되었다. 더욱이 본토로 쇄환된 울릉도민에 의해 울릉도에 대한 경험이 축적됨에 따라 우산도는 무릉도와는 서로 다른 두 섬으로 개념이 분리되어 나갔다. 여기에 무릉도가 오늘날의 울릉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확정되면서 우산도는 울릉도 외의 한 섬을 가리키는 것으로 굳어졌다. 이에 따라 쇄환을 집행하는 사람의 직함도 1차 쇄환의 '무릉등처 안무사'에서 우산도와 무릉도가 나열된 '우산 무릉등처 안무사'로 확장되었고, 3차 쇄환 이후에는 이 가운데 무릉도가 울릉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확정되면서 4차 쇄환에서는 다시 '무릉도 순심경차관'이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혼동을 겪으면서 확장된 지리적 지식은 이후 편찬된 고려사와 세종실록 지리지에 고스란히 반영되었다.



### 3) 조선시대 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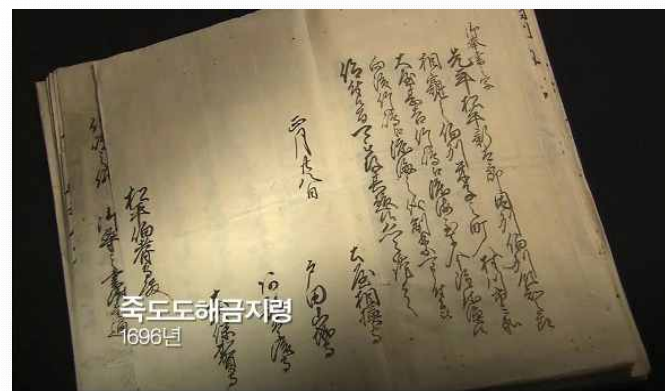
임진왜란을 전후해 일본인들의 공도가 된 울릉도 출입과 자원 채취가 잦아지며 일본인들은 자연스럽게 독도를 발견하게 되었다. 일본인들은 울릉도를 가리켜 다케시마(竹島) 내지 이소다케시마(磯竹島), 독도를 가리켜 마쓰시마(松島)라고 불렀다. 하지만 위에서 보이는 것처럼 울릉도는 이미 조선의 영토로 규정되어 있었고, 조선 어민과의 마찰이 생겼다. 이 과정에서 **울릉도 쟁계** 사건이 발생했다.

1693년 일본어에 능통했던 어부 안용복은 울릉도에서 다른 어민들과 함께 고기잡이를 하게 되었는데, 이 때 울릉도에 일본 어선이 불법으로 정박해 있는 모습을 보자 언쟁을 했다. 이에 일본인들은 쇼군(將軍, 당시 일본 최고권력자)에게 받은 어업 허가증(**죽도 도해 면허**)이 있다고 반박했고 안용복은 허가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동료 어부 박어둔과 함께 오키 섬(隱岐島)까지 일본 어부들과 가게 된다.(안용복의 1차 도일) 안용복은 오키도주(島主) 앞에서 울릉도와 자산도(子山島, 독도)는 명백한 조선의 영토이며, 일본인이 불법으로 남의 땅에 와서 행패를 부리고 멋대로 고기잡이를 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다 오키도주의 상관인 호키번 태수는 에도 막부에 상황을 알리는 편지를 보냈다. 에도 막부는 섬 하나 때문에 이웃나라와의 교린을 해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울릉도에서 조업하던 가문들에게 일본 동해안으로 어장을 옮길 것을 지시하고 대신 일본인이 울릉도로 가지 않겠다는 편지를 써서 안용복에게 준 다음 그를 조선으로 돌려보내라는 명령을 내린다. 그러나 조선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대마도주가 수하들을 보내 시모노세키에서 안용복 일행을 잡아 그를 고문하고 쇼군이 준 편지도 빼앗았다.

안용복은 조선에 돌아온 후에도 동래 왜관에 2년간 구금되어 있었는데, 이는 대마도주가 고문의 사실을 조선 조정이 알까 두려워서였다. 자신이 동래부에서 2년간 구금된 것이 일본의 농간이라고 생각했던 것인지, 안용복은 일본의 유식층을 상대하기 위한 승려 5명을 포함해 일행 11명을 만들어서 울릉도로 출항했다.(안용복의 2차 도일) 그리고 또 다시 울릉도에 일본 어선이 있는 모습을 보고 일본 어부들과 실랑이를 벌이게 되고 결국에는 독도까지 도망가는 일본 어선을 쫓아간

끝에 일본으로 가서 자신을 '울릉우산양도감세장'(울릉도와 자산도, 두 섬의 세금을 관장하는 장군이라는 뜻)이라고 칭하고 다시 호키번 태수를 만나 항의하고 조선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이듬해 일본 에도 막부는 대마도주를 통하여 공식적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일본인의 울릉도 침입 및 월경(越警)을 금지시키겠다고 통보하였다.(**죽도 도해 금지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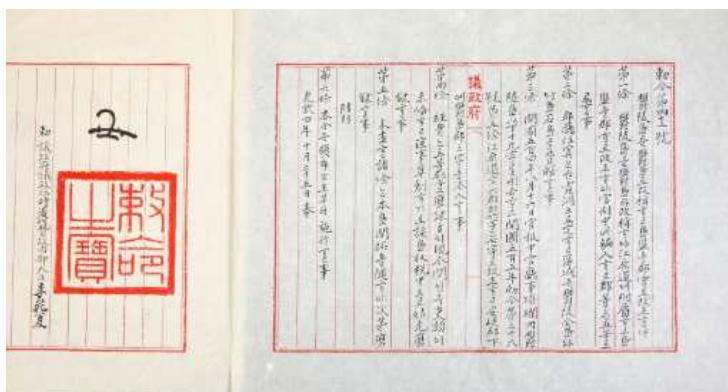
안용복 이후 조선에서는 고종 때까지 울릉도 인근에 대한 영유권 문제가 벌어지지 않았다. 또한 안용복 사건 이후 숙종 때에는 울릉도 인근에 대한 감찰이 강화되어, 원칙적으로 3년에 한 번씩은 울릉도 인근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 4) 근현대

19세기 에도 막부의 붕괴와 메이지 정부의 수립 과정에서 도해 금지령의 실행이 느슨해지자, 다시 일본인들의 울릉도 도해가 활발해져 어채와 벌목 등이 공공연히 자행되면서 조선의 골칫거리가 되었다. 이를 적발한 조선 조정은 1881년 일본 정부에 서계를 보내어 항의하는 한편 이규원을 울릉도감찰사로 임명하여 현지를 조사하게 하였다. 조선 정부는 이규원이 울릉도를 탐색하고 돌아온 뒤 공식적으로 쇄환정책을 폐기하고 울릉도 개척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해 1883년에는 개화파의 영수 김옥균을 동남제도개척사(東南諸島開拓使)로 임명해 사람을 이주시키고 울릉도의 일본인들을 쇄환하였다. 하지만 울릉도에 일본인들의 침탈이

거듭되는데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일본 정부의 태도에 애를 먹던 대한제국 정부는 마침내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반포하여 울릉도를 군으로 정식 편제하는 한편, 석도를 죽도와 함께 울릉도의 행정구역에 소속됨을 분명히 규정하였다. 하지만 이듬해 1904년 1월 러일전쟁이 발발하고 일본과 대한제국 사이에 **한일의정서**가 체결되면서 대한제국의 주권은 급속도로 일본에 잠식되어갔다. 일본 정부는 한일의정서를 통해 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음에도 동해 한가운데 자리한 독도의 전략적 가치에 주목하여, 1905년에는 일전에 있었던 나카이 요사부로의 청원을 수리하는 방식으로 1월 28일 내각 결의가 이루어져 2월 22일에는 **시마네현 고시 제40호**가 발효되어 아예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편입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무력해진 대한제국은 결국 1910년 일본에 강제 흡수당하며 모든 영토적 주권을 상실했지만, 그 뒤로도 일본은 지도에서 독도를 분명히 울릉도의 부속 도서로 인식하여 조선총독부 치하에 표시하였고 1945년 일본이 항복하면서 연합국 최고사령관 더글러스 맥아더가 독도를 울릉도와 함께 일본의 판도에서 제외하는 지령으로 **SCAPIN 제677호**를 발효함에 따라 독도는 다시 국제법상 한국의 영토가 되었다.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 나. 한국과 독도

### 1) 우산국 복속

512년 신라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벌하여 신라가 우산국을 복속합니다. 이때부터 독도와 울릉도의 역사가 우리 역사와 함께하게 됩니다. 『동국문헌비고』(1770년)에는 “울릉(울릉도)과 우산(독도)은 모두 우산국의 땅”이라고 기술했습니다.

### 2) 『세종실록』 지리지

『세종실록』 지리지(1454년)는 울릉도와 독도가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두 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선왕조 역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밝히는 일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일본은 1667년 자국민이 퍼낸 책인 은주시청합기에서 일본의 북서쪽 경계는 이주(은주: 오키 섬)를 한계로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일본인들이 독도를 그들의 영토가 아님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3) 안용복 일본 납치

안용복, 박어둔 두 사람이 울릉도에서 어업을 하다가 울릉도에 온 일본 선원들에게 잡혀서 일본으로 끌려간 사건입니다.

### 일본 돛토리번 답변

‘일본 막부는 울릉도 영유권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돛토리번에 울릉도의 소속을 질문(12월 24일)했습니다. 이에 대해 돛토리번이 막부에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가 돛토리번의 소속이 아니라고 답변(12월 25일)함에 따라 막부는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령이 아님을 공식적으로 확인합니다.’

### 1월. 다케시마(울릉도) 도해금지령

‘일본 막부는 돛토리번을 통해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령이 아님을 확인하고 다케시마(울릉도) 도해금지령을 내렸습니다.(1696년 1월 28일) 이후 조선과의 외교문서를 통해 울릉도가 조선령임을 공식 확인하였습니다.(1699년)’

## 5월. 안용복(安龍福) 일본 도해

‘안용복(安龍福)이 울릉도에 어업 온 일본 어선을 추격하여 독도(자산도)에서 쫓아버리고, 일본에까지 다녀온 사건입니다. 이때 안용복이 오기섬 관리에게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령이라고 진술한 기록이 「원록9병자년조선주착안일권지각서」에 실려 있습니다.’

### 4) 울릉도 수토제도 시행결정

안용복 사건으로 인해 일본과 울릉도 영유권에 대한 분쟁(울릉도 쟁계)이 발생하자, 조선 정부는 삼척첨사 장한상을 울릉도에 파견하여 울릉도의 현황을 조사합니다. 그 이후 2년 걸쳐 한 번씩 관원을 울릉도에 파견하여 수토\*를 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는 울릉도와 독도에 출어와 벌목을 위해 들어온 일본인들을 국제법상의 처벌 대상이 되게 하였습니다. \* 수토 : 무엇을 알아내거나 찾기 위해서 조사하거나 살핌.

### 5) 「동국문헌비고」 「여지도」

국왕 영조의 명에 의해 조선의 문물제도를 기록한 관찬서입니다. 이 책에 “우산도(독도)와 울릉도… 두 섬으로 하나가 바로 우산이다... 「여지지」에 이르기를, 울릉과 우산은 모두 우산국의 땅인데, 우산은 일본이 말하는 송도(松島)다.”라고 하였습니다.

### 6) 「태정관(太政官)지령」

1877년 3월 일본 최고 행정기구인 태정관이 내무성에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령이 아니라고 내린 지령입니다. 태정관은 17세기 에도 막부와 조선 정부 간 교섭(울릉도 쟁계) 결과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소속이 아님이 확인되었다고 판단하고, “다케시마(울릉도) 외 일도(一嶋, 독도)의 건에 대해 본방(本邦, 일본)과는 관계가 없음을 명심할 것”이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는 일본의 메이지 정부가 공문서를 통해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님을 분명히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 7)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반포(1900. 10. 25)

고종 황제는 대한제국 칙령으로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

한 건’을 제정 반포했습니다. 이 칙령 제2조에 울도군의 관할 구역으로 울릉전도, 죽도와 함께 석도를 규정하여 독도가 울도군의 관할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대한제국은 일본이 주장하는 무주지 독도 편입보다 5년 앞서 독도가 우리 관할 구역에 속하는 우리의 영토라는 사실을 국내외에 공표했던 것입니다.

### 8) 연합국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677호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일본의 통치 행정범위에서 독도를 제외시킨 각서입니다. 연합국 최고사령관은 일본의 영역에서 울릉도, 리앙쿠르암(독도)과 제주도는 제외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2차 세계대전 이후 외국의 국가들이 독도가 한국의 땅이라고 규정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 9) 연합국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1033호

일본의 선박 및 국민이 독도 또는 독도 주변 12해리 이내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한 각서입니다. 이 역시 SCAPIN 제677호에 이어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님을 타 국가들이 규정했음을 보여 줍니다.

### 10)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제2차 세계대전을 종결하면서 연합국과 일본이 체결한 조약입니다. 이 조약 제2조(a)에서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규정했습니다. 비록 독도가 직접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지만 위의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는 한국의 3천여 개 도서들 중 한 예시이기에 울릉도의 부속도서인 독도 역시 이 조약의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 11) 고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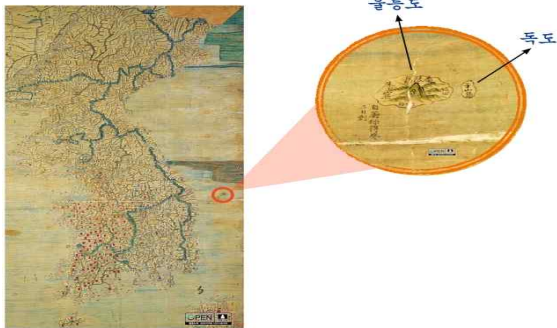
#### 가) 신증동국여지승람 소재 팔도총도

1531년 중종 때 완성되었으며, 독도를 우산도라고 표기하였다. 현존하는 한국 고지도 중 가장 오래된 독도표기 지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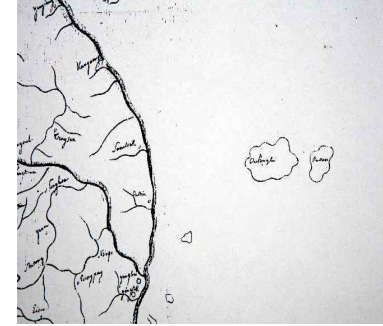
## 나) 「동국대지도」

1755년에서 1767년 사이에 조선의 지리학자 정삼기가 만든 지도이다. 지도에 울릉도와 독도가 자세히 표시되어 있다. 그 이전까지 불확실하게 표기되던 독도와 울릉도의 정확한 위치를 잡았다는 의의가 있다.



## 다) 김대건의 조선전도

1864년 김대건 신부가 작성한 지도로 독도를 우산이라고 표기 했으며, 독도와 울릉도의 위치를 정확히 표기한 것이 특징이다. 이 지도는 서양세계의 소개된 한국의 첫 지도로서 당시 서양(특히 천주교)에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인식을 심어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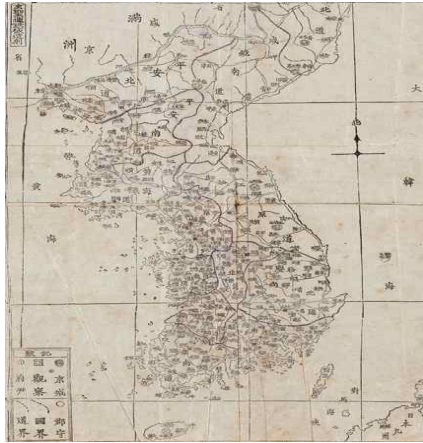
## 라) 대조선국전도

조선 후기 목판 인쇄 지도로서 울릉도와 독도의 위치와 크기를 비교적 정확히 표기하였다. 또한 울릉도 옆에 800리라고 적혀있는데 이는 울릉도까지의 거리를 정확하게 인식했음을 나타낸다.



## 마) 대한 신지지 「대한 전도」

1907년 장지연이 편찬하였다. 독도가 지도에 직접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울릉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우산도는 그 동남에 있다.” 고 밝힘으로서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으로서 이며 대한제국의 영토임을 밝히고 있다. 이 지도는 을사조약이 체결된 후 지리에 대한 관심의 확대와 올바른 지리 지식을 통한 자주권 확보를 위한 중요한 방안 중 하나였다.



## 12) <한국의 실효적 지배 근거>

**첫째, 경찰이 주재하여 독도를 경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독도를 지키고 있는 독도 경비대는 40여명정도의 경찰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독도를 군인이 아닌 경찰이 지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군인은 국경이나 분쟁 지역을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독도는 분쟁지역이 아닌 명백한 우리의 땅이기에 경찰이 지키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이 주둔하고 있다는 뜻은 독도가 한국의 행정권 아래 있다는 증거입니다.



**둘째, 우리 군이 독도 영해와 영공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독도의 땅이 우리의 땅이기에 독도의 영해와 영공은 국제법적으로 자연스럽게 우리의 땅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이 독도의 영해와 영공을 수호하는 것은 위와 마찬가지로 독도가 한국의 행정권 아래 있다는 증거입니다.

**셋째, 각종 법령이 독도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독도에서 시행되는 각종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국유재산법 시행령(12.1.26)
- \* 문화재보호법(12.3.17)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09.2.6)
- \* 특정도서 고시(11.8.26)
- \* 어업자원보호법(08.2.29)
- \*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02.12.30)
-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12.8.23시행)
-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12.2.5시행)
- \* 배타적 경제수역법(11.4.4시행)
- \* EEZ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법률(10.4.23시행)
- \* EEZ에서의외국인어업제한위반선박등에대한규칙(97.8.7시행)
- \* 영해 및 접속수역법(11.4.4)
- \* 해양과학조사법시행규칙(08.3.14)
-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11.4.14 시행)
- \* 문화재위원회 규정(11.2.5 시행)
- \*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시행령(11.11.30 시행)

이처럼 대한민국 정부는 다양한 법을 통해 독도를 자국의 영토이자 재산으로 인정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으며 타국으로부터 독도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외교부 독도)

넷째, 등대 등 여러 가지 시설물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도 (주민숙소, 음용시설, 등산로)

서도 (독도등대, 위성안테나, 등산로, 접안시설, 경비대)



## 다. 지리 속의 독도

### 1) 독도의 위치



《세종실록, <지리지> (1454)에도 “우산도(독도)와 무릉도(울릉도) 두 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위에 울릉도에 수토제도를 설립하러 갔던 장한상 역시 울릉도에서 정확하게 독도를

보았는데 이 내용이 그의 울릉도 수토기에 적혀있다.

“동쪽으로 바다를 바라보니 동남쪽에 섬 하나가 희미하게 있는데 크기는 울릉도의 3분의 1이 안 되고, 거리는 300여 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위의 내용들은 옛날 우리 선조들이 육안으로 독도를 보아왔음을 확실하게 나타낸다. 과거에는 육안으로 보이고 오갈 수 있는 섬들은 같은 생활공간으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울릉도민들에게 독도는 예로부터 그들의 생활권이었을 것이다.

반면에 독도에서 가장 가까운 일본 땅은 일본 북서쪽 끝에 위치한 시마네 현 오키 섬이다. 하지만 오키 섬에서는 독도가 보이지 않는다. 독도는 울릉도로부터 87.4km 떨어져 있지만, 일본 오키 섬에서는 157.5km나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 2) 계통 지리학상 독도

2004 년부터 4 년간 실시한 독도-울릉도 자연실태 학술조사에 따르면, 독도의 해조류 3 종이 한국 동, 서, 남해안에 서식하는 개체의 유전자형과 일치하거나 이로부터 분화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에 사용된 해조류 3 종은 왜비단잘록이, 개지누아리, 갈조류 참가죽 그물바탕말로 이들은 모두 한국, 일본 연안에 서식한다.

김형섭 교수는 “독도 해조류는 동한난류를 따라 마지막 빙하기( 약 1 만 5000 년~ 약 1 만 8000 년 전) 이후 들어온 한국형이며 계통지리학상 독도가 한국땅이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즉, 독도 해조류의 유전자 유형이 한반도 지역의 유전자 유형과 같은 것은 독도가 계통지리학상 ‘우리 땅’임이 입증된 것이다. 지리적으로 독도와 한국은 가깝고 유사한 자연환경까지 갖추었다. 이는 독도가 한국의 고유영토임을 증명한다.



## 라. 세계 속의 독도

### 1) 일본과 독도

#### 가) 조선국지리도(159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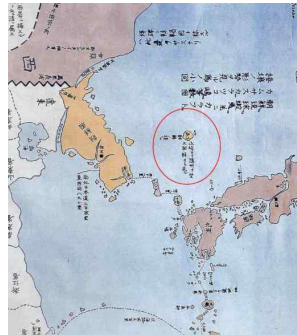
임진왜란 당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령으로 구끼 등이 제작한 지도이다. 팔도총도와 강원도별도에 울릉도와 우산도(독도)를 표기하였다. 현재 발견된 지도 중 울릉도와 독도를 우리식 명칭으로 표기한 최초의 지도이며, 대마도를 우리의 영토로 표시한 최초의 지도이기도 하다.



#### 나) 삼국점양지도(178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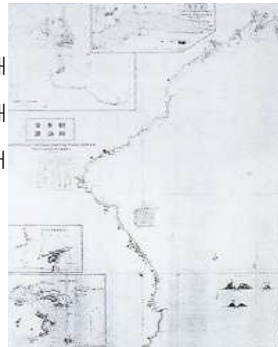
일본의 지리학 대가인 히야시 시헤이가 그린 지도.

조선해(동해) 한가운데 두 개의 섬을 그려놓고 왼쪽의 큰 섬을 죽도(울릉도)라 하고 “조선의 것”이라 부기하였으며, 그 오른쪽 작은 섬은 독도를 그린 것인데, 이 두 섬은 모두 조선의 영토와 같은 색(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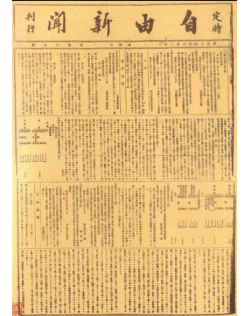
#### 다) 조선동해안도(1876년)

1857년 러시아 해군이 작성한 지도를 1876년 일본해군성에서 작전용으로 재발행한 것이다. 한반도 동부해안의 포구와 해안선, 그리고 울릉도와 독도가 부속도서로 상세히 그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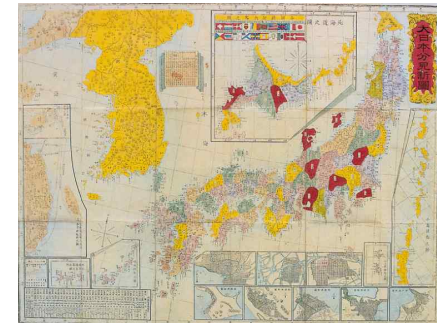
#### 라) 자유신문(1882년 8월 2일)

일본이 임오군란 수습책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밖으로는 무력적 위협을 가하고 안으로는 평화 담판으로 보상금을 요구함. 토지를 할양받는 것은 영원한 원한을 갖게 되므로 원칙적으로 좋은 방법이 아니다. 그러나 조선의 송도(독도)를 떼어 받는 것은 좋을 것이다.” 라고 하여 송도(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 마) 대일본본권신도(1878년)

일본도 좌측 상단에 조선도를 그려 넣고, 일본과는 달리 단일색체로 표기하였는데, 죽도(울릉도), 송도(독도)를 조선 영토로 나타내고 있다.



#### 바) 수로지(1883년~)

1883년 일본 해로 수로국에서 최초로 환영수로지를 발행하기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최초의 수로지인 환영수로지에서는 독도를 ‘리앙고루도암’이라 하여 울릉도와 같은 항목에 넣어, 울릉도와 속도로 보고, ‘리앙고루도암’의 유래, 섬의 위치, 섬 사이의 거리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후 광복이전까지 일본에서 발간된 조선연안에 관한 각종 수로지에서는 일관되게 독도에 대한 산세내용을 울릉도 항목 아래에 서술하여, 독도가 울릉도와 함께 한반도의 부속도서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다가 광복 이후 1952년 해상보안청 발행 조선남동안수로지부터 울릉도 항목에서 독도를 제외시킴으로써, 울릉도와 독도의 본-속도 관계를 부

인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일본에서 발행된 수로지를 통해 볼 때,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든가, 1905년 소위 시마네현 고시 40호에 의한 근대법적 독도 영유권 확립이라는 일본의 주장은 명백한 허구임을 알 수 있다.



## 2) 국제법과 독도

### 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1900. 10. 25)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발표로 대한제국의 독도 영유권을 국제적으로 공표. ‘석도(독도)는 울릉군에 속한 땅이므로 울릉군은 울릉도와 석도(독도)를 다스린다.’ 이는 1905년 일본의 발표보다 5년 빠른 공표이다.

#### <번역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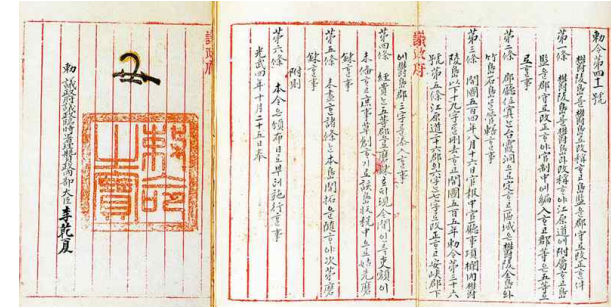
(칙령 제41호)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한 건

제1조 →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여 강원도에 부속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하여 관제 중에 편입하고, 군의 등급은 5등으로 할 일

제2조 → 군청 위치는 태하동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전도와 죽도·석도를 관할할 일

#### <원문>

(勅令第四十一號) 鬱陵島를 鬱島로 改稱하고 島監을 郡守로 改正한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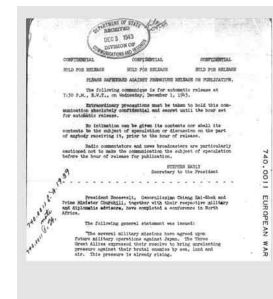
第一條 → 鬱陵島를 鬱島라 改稱하야 江原道에 附屬하고 島監을 郡守로 改正하야 官制中에 編入하고 郡等は 五等으로 할 事 第二條 → 郡廳位寅난台霞洞으로 定하고 區域은 鬱陵全島와 竹島 · 石島랄 管轄할 事

### 나) 카이로선언(Cairo Declaration, 1943.11.27 서명, 12.1 발표)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려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 영국 처칠 수상, 중국 장제스 총통이 참석한 카이로 회담에서 결의한 선언문이다.

주요 내용: 첫째 연합국은 일본의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전쟁을 하고 있으며, 영토를 확장할 의도는 없다고 전제하고, 둘째 전후 일본 영토 처리 기본 방침과 한국을 독립시킬 것을 결의하였다. 셋째 이를 이루기 위해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이끌어내기 위해 필요하고 중대하고 장기적인 행동을 취하기로 결의했다.

카이로 선언은 포츠담 선언 제8조에 인용되었고, 일본은 항복 선언에서 포츠담 선언을 수락함으로써 카이로선언의 영토 조항은 전후 일본 영토 처리 기준이 되었다.



<카이로 선언문>

#### 다) SCAPIN 677호(1946.1.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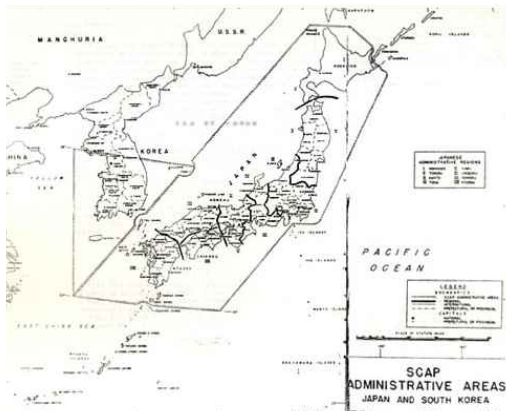
일본으로부터 일정 주변지역의 통치 및 행정상의 분리(Governmental and Administrative Separation of Certain Outlying Areas from Japan)에 관한 각서

제 2 차 세계대전 종전 후 연합국 최고사령관 총사령부는 1946 년 1 월 29 일 연합국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 677 호를 통해 독도를 일본의 통치·행정 범위로부터 제외하였다. 동 각서는 제 3 항에서 일본이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은 “혼슈(本州), 규슈(九州), 홋카이도(北海島), 시코쿠(四國) 등 4 개 주요 도서와 약 1 천 곳의 인접 소도서”라고 하고, 일본의 영역에서 “울릉도, 리앙쿠르암(독도)과 제주도는 제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라) SCAPIN 제 1033 호(1946.6.22)

일본의 어업 및 포경업 허가 구역(Area Authorized for Japanese Fishing and Whaling)에 관한 각서

연합국최고사령관 각서 제1033호는 일본의 선박 및 일본 국민의 독도 또는 독도 주변 12해리 이내 접근을 금지했다.



○ 연합국의 결정을 수정하려면 다른 지령이나 공표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후 다른 지령이나 협정이 없었으므로 대한민국이 독도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음이 입증된다.

#### 마. 일본의 주장 및 우리의 반박

##### 1) 일본 외무성

가) 국제법상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이  
유만으로 영유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1920년대에 미국과 네덜란드가 다툼 팔마스 섬 사건에서 ‘영역 주권의 근거라고 하는 근접성에 따른 권원은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no foundation)’고 판시되었다.



또 최근의 예로도 2007년에 온두라스와 니카라과가 다툼 카리브해 영토·해양 분쟁 사건의 판결에서 국제사법재판소(ICJ)는 분쟁 당사국들이 주장한 지리적 근접성을 영유권의 근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 외에도 2002년에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가 다툼 리기탄 섬·시파단 섬 사건에서는 귀속이 정해져 있는 섬에서 40해리 떨어져 있는 두 섬을 부속도서라고 하는 주장들이 기각했다.

**우리의 반박:** 독도는 울릉도에서 약 87.4km, 오키 섬에서 약 157km 떨어져 있다. 지리적으로 독도는 대한민국과 가까이 있으며 위의 판례와는 다르게 한국은 일본에게 강제 점령당해 식민지배를 당했었다. 독도는 이 때 일본에 편입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 전범국이자 패전국인 일본은 패배 후 연합국에 의해 항복 선언을 하였고 연합국이 공표한 사항을 따르기를 약속하였다. 이에 식민지배로 획득한 영토를 모두 반환하였고 이 안에 독도가 포함되어있다. 즉 실효적으로 독도의 영유권은 대한민국이 소유하고 있다.

나) 한국 측은 한국 고문헌·고지도에 기재되어 있는 ‘우산도’를 현재의 다케시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주장은 근거가 결여된 것이다.

한국 측은 조선의 고문헌에 나오는 기슭을 바탕으로 ‘울릉도’와 ‘우산도’라는 두 개의 섬을 예로부터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 ‘우산도’가 바로 현재의 다케시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의 고문헌에서 우산도가 현재의 다케시마라는 한

국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 측은, “세종실록지리지”(1454년)와 “신증동국여지승람”(1531년)에 우산·울릉의 두 섬이 (울진)현의 동쪽 바다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이 우산도가 다케시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종실록지리지”는 ‘신라시대에는 우산국이라 불렀다. 울릉도라고도 한다. 그 땅은 방백리’(新羅時称于山国 一云鬱陵島 地方百里),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일설에 따르면 우산·울릉은 본래 하나의 섬이다. 그 땅은 방백리’(一説于山鬱陵本一島 地方百里)라고 하고 있으며, 이들 문헌에는 ‘우산도’에 관해서는 전혀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지 않으며, 울릉도에 대해서만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산도가 현재의 다케시마가 아님을 명확히 나타내는 조선의 고문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태종실록” 33권의 태종 17년 2월조(1417년)에는 ‘안무사 김린우(金麟雨)가 우산도에서 돌아와, 섬의 산물인 큰 대나무를…헌상하고, 주민 3명을 데리고 왔다. 그 섬의 인구는 대략 15호에 남녀 합하여 86명’(按撫使金麟雨還自于山島 獻土產大竹水牛皮生苧綿子檢樸木等物 且率居人三名以來 其島戶凡十五口男女并八十六)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케시마에는 대나무가 자라지 않으며, 86명이나 되는 사람이 거주할 수 없습니다.

한국 측은 “동국문헌비고”(1770년) 등에 ‘울릉과 우산은 모두 우산국의 영토이며, 우산은 일본에서 말하는 마쓰시마(松島)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18세기 이후의 문헌 기술은 1696년에 일본에 밀항한 안용복이라는 인물의 신빙성 없는 진술에 따른 것입니다(Q&A ③ 참조). 또한 18세기와 19세기의 문헌 편집자가 ‘우산은 일본에서 말하는 마쓰시마이다.’라고 기록했다고 하더라도 그 점을 들어 “세종실록지리지”(15세기), “신증동국여지승람”(16세기)의 우산이 다케시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반박:**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태종실록의 우산도는 조선왕조실록이 입증한다. ‘우산도에서 몇 가지 약초와 함께 수우피등을 바쳤다.’라는 기록이 있다. 여기서 수우피는 가지어의 가죽으로 가지어의 서식지는 이들을 멸종시킨 일본이 우리만큼이나 잘 알 것이다. 또한 태종실록의 안무사 김린우의 일정 중 일본이 제시한 부분은 빙산의 일각이다. 태종실록 김린우의 전체 일정 중 김

린우가 출발할 때의 기록을 살펴보면 이렇다.

태종 16년(1416) 9월 庚寅 김린우는 왕명으로 무릉등처 안무사로 임명되어 무릉도 주변 지역을 모두 관찰하기 위해 출발하였다.

以金麟雨爲武陵等處按撫使. 戶曹判書朴習啓. 「....武陵島周回七息, 傍有小島, 其田可五十餘結, 所入之路纔通一人, 不可並行. 昔有方之用者, 率十五家入居, 或時假倭爲寇....」 上可之, 乃召三陟人前萬戶金麟雨, 問武陵島事....上然之, 以麟雨爲武陵等處安撫使...

다음으로 그의 귀환 기록이다. 태종 17년(1417) 안무사(按撫使) 김린우(金麟雨)가 우산도(于山島)에서 돌아와 토산물(土產物)인 대죽(大竹)·수우피(水牛皮)·생지(生苧)·면자(綿子)·검박목(檢樸木) 등을 바쳤다. 또한 거주민 3명을 거느리고 왔는데, 그 섬의 호수[戶]는 15구(口)요, 남녀를 합치면 86명이었다.

按撫使金麟雨還自于山島, 獻土產大竹、水牛皮、生苧、綿子、檢樸木等物, 且率居人三名以來。 其島戶凡十五口, 男女并八十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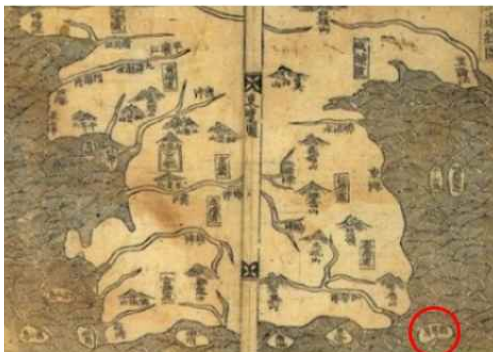
즉, 김린우는 무릉등처 안무사로 파견되어 무릉도의 가구 수를 파악하고 우산도 등의 섬에서 특산물을 가지고 귀환했다. 마지막으로 그의 귀환 기록을 정리하자면, ‘김린우가 우산도를 마지막으로, 무릉등처 방문 일정을 모두 마치고 귀환했다. 그곳의 토산물과 거주민을 데리고 왔는데, 그 섬의 호수는 15구요, 남녀 86명이었다.’가 옳다. 따라서 일본이 허구라 주장하는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태종실록의 우산도는 철새의 고향이자 한국 영토 동쪽의 끝, 독도가 맞다.

#### 다) 조선의 고지도에 기록된 우산도는 모두 독도가 아니다.

“신증동국여지승람”(1531년)에 첨부되어 있는 ‘팔도총도’에는 울릉도와 ‘우산도’의 2개 섬이 그려져 있다. 만약 한국 측이 주장하듯 ‘우산도’가 다케시마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이 섬은 울릉도의 동쪽에 울릉도보다 훨씬 작은 섬으로서 그려졌을 터이다. 그러나 이 지도상의 ‘우산도’는 한반도와 울릉도 사이에 위치하고, 또

한 울릉도와 거의 같은 크기로 그려져 있다. 따라서 이 ‘팔도총도’의 우산도는 울릉도를 2개의 섬으로 그린 것이거나 또는 가공의 섬이지, 울릉도의 훨씬 동쪽에 위치한 다케시마가 아니다. 1711년에 실시된 박석창의 울릉도 순시와 관련된 ‘울릉도 도형’에는 울릉도 동쪽에 ‘우산도’가 그려져 있는데 거기에는 ‘所謂于山島 海長竹田’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이 ‘해장죽(海長竹)’은 조릿대의 일종인데, 바위섬인 다케시마에는 전혀 그와 같은 식물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이 우산도는 다케시마가 아니다. 또한 울릉도 동쪽 약 2km에 위치한 죽서(竹嶼)(주)에는 조릿대가 군생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울릉도 도형’에서의 ‘우산도’는 죽서를 이르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우리의 반박:** 일본은 지도상의 크기와 독도의 대나무 유무에 따라 우산도가 독도가 아니라 주장하고 있다. 팔도총도의 우산도의 크기에 있어서는 정말 허무맹랑한 주장이라 할 수 있다. 팔도총도의 지도로 볼 때, 대마도와 울릉도의 크기는 매우 비슷하다. 하지만 실제 면적은 대마도가 708.7 km<sup>2</sup>, 울릉도가 72.86 km<sup>2</sup>로 약 9배 정도 차이가 난다. 즉, 고지도의 표기는 실제 크기와 정확히 비례하지 않는다는 기본 중에 기본을 일본은 간과하고 있다.



붉은 동그라미= 대마도

대괄호= 차례로 독도, 울릉도

#### 라) 안용복은 조선을 대표하는 인물이 아니다.

안용복은 1693년에 울릉도(당시 일본명 ‘다케시마’)에 출어했다가 오야 집안의 대리인이 일본으로 데려와 송환했으며, 1696년에는 돗토리번에 진정을 올릴 일이

있으며 이번에는 자의로 일본에 왔던 인물이다. 그러나 그 후 안용복은 함부로 국외로 도항했다고 하여 조선에서 취조를 받았다. 취조 중 안용복은 울릉도에서 일본인의 월경을 꾸짖었다, 일본인이 송도(松島)에 살고 있다고 하므로 송도는 자산도(子山島)이며, 이 또한 우리나라 땅이라고 말했다는 등의 진술을 했다. 이 때문에 그 후 조선의 문헌에서 우산도와 지금의 다케시마를 결부시키는 기술이 등장되었었다.한국측은 이 안용복의 취조시의 진술을 다케시마 영유권의 근거의 하나로서 인용하고 있다. 이 안용복의 진술은 “속종실록”의 속종 22년(1696년) 9월 무인조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 문헌(속종 23년 정축2월 을미조)에서는 당시의 조선이 안용복의 행동에 관여하지 않았고, 그의 행동은 조선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안용복의 진술 자체도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묘사가 많으며,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다

**우리의 반박:** 안용복은 조선의 백성으로서 자국의 여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였으며, 1693년부터 시작된 양국 간의 울릉도·독도 영유권 논쟁은 2년 넘게 문서를 왕복하며 논쟁하다가 에도 막부가 조사에 착수한 뒤 완전히 해결되었다. 에도 막부는 돗토리 번의 영주에게 두 섬이 돗토리 번에 속하는지를 물었고(1695. 12), 돗토리 번은 조선에서 ‘마쓰시마(松島 : 독도)’까지는 80~90 리(里), 마쓰시마(독도)에서 ‘다케시마(竹島 : 울릉도)’까지는 40리, 그리고 일본 오키 섬에서 마쓰시마(독도)까지는 80리이며, 울릉도와 독도 두 섬이 돗토리 번에 속한 섬이 아니라고 회답하였다(1696. 1. 25). 이에 1696년 1월 28일, 막부는 일본 어민들에게 울릉도와 독도에 가지 말라고 지시하는 도해금지령을 돗토리 번에 내렸다. 일본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다케시마 도해금지령’은 돗토리 번에 즉각 전해지지 않았고 조선에도 10월에야 알려졌다. 또한 안용복 사건 이후 조선 정부는 울릉도뿐만 아니라 독도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게 되었고, 이는 이후의 문헌에 반영되었다.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1770년)는 『여지지(輿地志)』에 이르기를, ‘울릉과 우산은 모두 우산국(于山國) 땅인데, 우산은 바로 왜인들이 말하는 송도(松島)이다’라고 하였다.”라는 내용을 실어 우산도=일본명 마쓰시마=독도임을 분명

히 했다. 이 내용은 『만기요람(萬機要覽)』(1808년)과 『증보 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1908년)에도 그대로 계승되었다. 에도 막부의 월경 단속 약속이 들어 오자 남구만은 아예 이는 역사적인 쾌거라고 칭찬했고 대소 신료들이 공이 능히 죄를 덮을 만 하다고 주장했으나 윤지완이 하지만 그렇다고 이 간악한 백성을 죽이지 않으면 안옹복의 공무원 사칭죄, 무단 월경죄를 흉내 낼 이가 많으니 처벌을 아예 하지 않으면 곤란하다고 하여 사형은 면한 대신에 귀양살이를 하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즉, 안옹복 사건으로 양국 간의 독도 문제는 일본의 에도 막부의 인정으로 해결되었으며, 조선은 이를 조사하고 문헌으로 기록하는 것으로 강화했다. 안옹복 개인에 대해서는 공은 인정하나 관리 사칭죄 등은 무거운 죄이기 때문에 처벌을 피해가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1877년 안옹복 사건을 초점으로 하여 메이지 시기, 일본 내무성은 지적(地籍, 토지기록부) 편찬사업에 울릉도와 독도를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관해 「동해 내 다케시마(울릉도) 외 일도(一島: 독도)의 지적 편찬에 관한 질의(日本海内竹島外一島地籍編纂方何)」를 작성, 당시 일본의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太政官)에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1877년 3월 태정관은 에도 막부와 조선 정부 간 교섭(울릉도 쟁계) 결과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소속이 아님이 확인되었다고 판단하고, “다케시마(울릉도) 외 일도(一島: 독도)의 건에 대해 본방(本邦, 일본)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이라는 지시를 내무성에 내렸는데, 이를 「태정관지령」이라 한다. 즉 안옹복 사건은 개인을 초월하여 국가적인 상호작용이 있었고 에도막부와 태정관(일본 최고기관), 모두 독도가 일본의 영토임을 밝혔다.

**마) 연합국과 일본이 맺은 모든 조약에 독도가 반환되어야 하는 지역이라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일본이 영유권을 확립하였고, 1905년 각의 결정에 따른 다케시마의 시마네현 편입에 의해 그 영유 의사를 재확인하고, 그 후에도 평온하게 계속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도 다케시마는 일본이 한국으로부터 탈취한 지역이 아니라는 점은 명백하다. 또한 원래 전후의 영토 처리는 최종적으로는 평화조약을 비롯한 국제약속에 따라 이루어진다. 제2차 세계대전의 경우 전후 일본의 영토를 법

적으로 확정된 것은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이며, 카이로선언은 일본의 영토 처리에 대해 최종적인 법적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에서는 다케시마가 일본국의 영토임이 인정되어 있다. SCPIN 제677호, 제1033호에 명시된 한국의 섬에 관한 항목에 대해 연합국의 정책 표명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다.

**우리의 반박:** 일본은 강제적인 편입 외에는 그 어느 시대에도 영유권이 없었음은 일본의 고지도, 고문헌에 기록되어 있다. 독도는 일제 강점기에 일본에 의해 강제로 편입되었다가 대한민국의 품으로 반환되었다. 연합국 최고사령부 등의 연합국 문헌에는 일본의 항복과 함께 폭력으로 침탈한 영토의 반환을 촉구했다. 일본은 이 조건에 승낙하며 항복하였고 전후 처리는 연합국의 권리였다. 일본은 전범국이자 패전국의 책임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일본이 연합국의 공표를 따르지 않음은 제국주의와 그들의 폭력행위를 정당화함이다.

스카핀 제677호 제3항에서 일본이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은 “혼슈(本州), 규슈(九州), 홋카이도(北海島), 시코쿠(四國) 등 4개 주요 도서와 약 1천 곳의 인접 소도서”라고 하고, 일본의 영역에서 “울릉도, 리앙쿠르암(독도)과 제주도는 제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스카핀 제1033호, 연합국최고사령관 각서 제1033호는 일본의 선박 및 일본 국민의 독도 또는 독도 주변 12해리 이내 접근을 금지했다. 스카핀 각서에는 독도의 권리가 한국에 있음이 확실히 명시되어 있다.

## 2. 시민 단체들의 자발적 독도 수호 노력

### 가. 한국독도 연구원



한국독도연구원은 한일 간 쟁점이 되고 있는 독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순수NGO(비정부기구)의 활동을 통해 양국의 역사인식을 재정립하고 역사적 논리 전개와 안보, 애국심 교육을 병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한국의 독도를 지키기 위한 대응책을 간구하기 위해 설립된 연구기관입니다.

#### 주요활동

1. 학술 연구 대회 개최
2. 독도 탐방
3. 책자, 논문 발간 (ex)한국독도 어떻게 지킬 것인가-조선국교시말내탐서 연구)

#### 4. 중고생 대상 독도 안보특강

#### 5. 일본 대사관 앞에 다케시마의 날 저지 결의문 전달

**장점:** 한국독도 연구원은 다른 연구소들과 다르게 역사적 교육 뿐 만 아니라 안보, 애국적 교육 전개에 중점을 둡니다. 특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독도 안보특강을 하면서 청소년들에게 독도를 통해 안보를 교육하고 안보를 통해 독도를 교육합니다. 또한 연구 내용 역시 독도를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에 맞춰져 있어 어떠한 대응책이 나올지 기대되는 단체입니다.

**아쉬운 점:** 독도를 지키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만 독도를 왜 지켜야 하는지에 관한 독도에 가치에 대한 연구도 같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나. 대구한의대학교 안용복 연구소

#### ○주요업무

1. 안용복·울릉도·독도 관련 한국·일본·미국 등 각국의 자료 수집과 정리·번역·출판
2. 환동해문화권을 중심으로 한 해양의 역사와 한일교류사 및 船舶의 역사 연구 용역 사업
3. 안용복과 관련한 역사적·사회적 문제에 대한 국내외 연구기관·단체 등과의 공동연구 및 인적교류 추진
4. 동해를 포함한 울릉도·독도의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수익사업
5.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정치·경제·사회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제고와 울릉도 발전의 청사진 제시
6. 동해의 해양자원과 생태계 자원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연구 및 관·학·민과의 연계 사업
7. 강연회 및 각종 학술대회, 콜로키움 개최
8. 연구보고서, 학술논문집, 관련용역사업 추진
9. 기타 연구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대구 한의대학교 안용복 연구소는 독도와 안용복에 대한 연구를 심층적으로 하기 위해 설립된 대구 한의대학교 산하의 연구기관이다.

#### 주요사업

1. 안용복, 독도와 관련된 한,미,일의 자료를 수집, 정리, 번역, 출판

2. 안용복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심층적 연구
3. 울릉도, 독도관련 다양한 콘텐츠 개발
4. 동해의 해양자원과 생태계자원 보존, 관리를 위한 연구 및 사업
5. 강연회와 학술대회 개최

**장점:** 다른 연구소들과는 달리 독도만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안용복 연구소는 이름처럼 독도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역사적 인물 안용복 역시 같이 연구해 나갑니다. 이런 안용복 연구소를 계기로 그동안 독도에만 집중했던 독도 연구 기관들과는 달리 앞으로 안용복을 포함한 독도를 수호한 영웅들에 대해서도 연구가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점:** 제대로 된 홈페이지가 존재하지 않고 주요사업과 설립목표 정도만 나와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콘텐츠를 개발하는지, 어떠한 자료를 수집 정리, 번역, 출판 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없었습니다. 연구소 홈페이지를 만들어 일반인들도 안용복 연구소에 연구 내용을 알 수 있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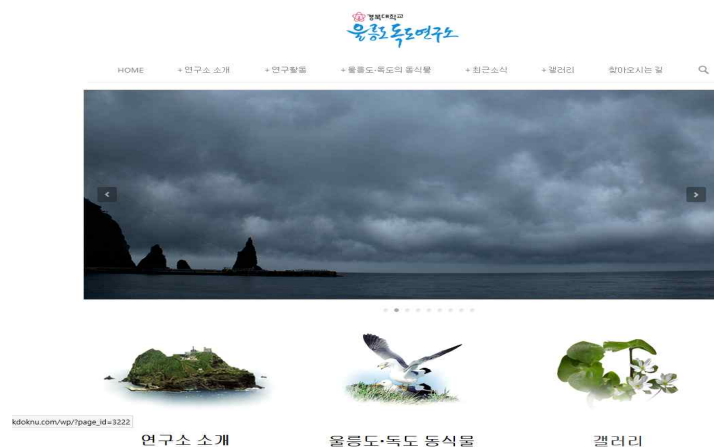
경북대학교 울릉도, 독도 연구소는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자연 생태적, 국제법적, 인문 사회적 연구를 통하여 울릉도와 독도의 보전방안을 마련하고, 자연환경 및 유용생물을 개발하여 생태공원 및 지속가능한 상태관광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경북대학교 산하 연구기관이다.

## 주요활동

1. 울릉도와 독도의 육상생태계에 대한 연구와 보전전략 수립
2. 울릉도와 독도의 유용생물 및 생태관광자원개발
3. 울릉도와 독도 관련 교육과정 개설 및 운용

**장점:** 울릉도의 동식물들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자세한 내용을 소개해놓았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에 울릉도나 독도에 관한 sns 소식들을 올려놓아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최신 소식들을 확인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논문, 보고서등 심층자료와 사진과 함께 있는 기초자료를 함께 게시하여 누구나 쉽게 와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 다. 경북대학교 울릉도·독도 연구소



## 라. 경일대학교 독도, 간도 연구소

경일대학교 독도, 간도 연구소는 독도와 간도에 대한 각종 연구결과 및 동향을 일반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육함으로써 독도와 간도에 대한 국민공감대를 형성하여 독도 및 간도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진 경일대학교 산하의 연구기관이다.

## 주요활동

1. 독도 간도 학술세미나
2. 초,중,고교생 독도교육 및 탐방, 독도사랑 사진 전시

## 독도·간도교육센터

☎ 전화 : (053)600-5932	<b>연구소의 목적</b> 경일대학교 독도·간도교육센터는 03호관(교수연구동) 1층에 위치하고 있다. 본 센터는 독도와 간도에 대한 각종 연구결과 및 동향을 일반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육함으로써 독도와 간도에 대한 국민공감대를 형성하여 독도 및 간도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2007년 3월 27일에 설립되어 연구팀과 교육팀, 홍보팀, 자료팀, 재정/사무팀을 두고 독도 및 간도 교육을 지속적으로 교육 및 연구하고 있다.
	<b>주요사업</b> 독도·간도 학술세미나 및 심포지엄 개최 경상북도 독도연구기관 통합협의체 사업 초·중·고교생 독도·간도교육 및 탐방, 독도·간도사랑 사진·자료 전시 경상북도교육청 독도사랑 정보검색대회 주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독도·간도의 연구조사 및 교육/홍보 활동 지원 기타 본 센터의 설립목적에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 3. 경상북도 교육청 독도사랑 정보검색대회 주관

**장점:** 독도교육에 중점을 둔 연구소인 만큼 다른 연구기관에 비해 시민들과 학생들을 위한 교육사업이 많습니다. 이 연구소는 초,중,고교생들에게 독도교육을 하고 독도탐방을 시켜주며 이중에 특히 독도사랑 정보검색대회는 청소년들이 독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독도에 관한 자료를 스스로 찾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보고 저는 우리 학교에서도 이런 대회가 개최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쉬운 점:** 이 단체 역시 안용복 연구소처럼 홈페이지가 없어서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 자세히 알기 힘들었으며 연구결과 역시 쉽게 찾을 수 없었다. 특히 경일대학교 연구소의 목표가 독도에 대한 연구결과들을 일반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육해 독도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이므로 홈페이지를 만들고 홍보활동을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 경일대학교 연구소의 자료를 얻어갔으면 좋겠다.

## 마. 영남대학교 독도 연구소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는 독도를 비롯한 동해안의 문화와 역사, 자연생태와 부존자원, 관련 법규에 관한 자료를 수집 및 연구하고 일본 측의 연구자료를 수집 및 연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영남대학교 산하의 연구기관이다.

## 주요활동:

1. 국내외 학술대회,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독도교육, 일본의 독도계획 파악, 근현대 일본의 독도 침략과 독도의 역사 등)
2. 일본, 한국 양측의 자료를 연구하여 보고서를 작성했다.
3. 연구 성과를 모아 발간했다.(연구총서)
4. 홈페이지에 독도 아카이브를 운영
5. 독도관련 증거 수집을 위한 일본 방문
6. 독도관련 교육 전시회 개최

**장점:** 독도와 관련 된 연구 자료가 풍부합니다. 간행물인 독도연구는 24호까지 발간되어 있으며, 논문자료 역시 풍부합니다. 이런 풍부한 자료를 바탕으로 홈페이지에 독도관련 아카이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도 관련 아카이브는 독도 전시회를 카메라로 찍은 동영상으로 독도 전시회를 직접 가지 않고도 간접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에 미국어, 일본어 버전을 만들어 놓아 외국인들도 들어와 독도에 관한 바른 정보를 얻어 갈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런 노력들은 방문자들이 조금 더 쉽게 들어와 독도관련 정보들을 볼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서 이 연구소가 연구뿐만이 아니라 홍보나 교육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쉬운 점:** 풍부한 자료들이 있지만 연구 자료들에 번호로 매겨져 있어 어떤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알기 쉽지 않았다. 또한 연구 자료가 어려운 논문 형태로만 되어있어 어린 친구들이 보고 알기에는 쉽지 않았다. 이렇게 간단한 정보들은 잘 드러나 있지만 독도에 관한 중요한 자료들은 보기 어렵게 나타나 있어서, 풍부한 연구 자료가 조금은 더 정리되어 나타나 있으면 좋겠다.

## 바. 독도 수호대

### 주요 활동

1. 울릉도-독도 학술 뗏목 탐사
2. 독도 표준화 사업
3. '독도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 운동
4. 교육 및 홍보 활동
5. 물골 수질 검사
6. 대일 관련 단체 연대 활동
7.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
8. 대일 활동

### 독도 수호대에 대해 느낀 것

자국 영토에 신경 써야할 대한민국 정부조차도 독도의 위치, 거리, 구성, 면적 등과 같은 기본 정보가 철저하지 않았을 때, 독도 수호대가 주도하여 독도의 기본 정보를 정부와 함께 정리한 것에 대해 존경심을 표한다. 독도를 지키고 싶어 하면서 독도에 대한 기본적인 것도 알지 못한다면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 당시 정작 독도가 자국의 영토가 아님에도 일본은 독도의 기본 정보는 확실하게 알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독도 수호대 사이트에 그들이 실시한 주요 민간 활동만 기재되어있을 뿐, 그들의 주요 학술 연구 자료는 사이트에 기재되어있는 것처럼 표시되어있었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제시되어있지 않았다. 이 점은 굉장히 안타깝다.

독도 수호대는 독도 관련 뉴스기사를 기재하고 그 기사를 정리정돈 한 후 더하여 자신들의 의견과 연구 자료를 토대로 다시 각축하여 사이트에 기재했다. 이 활동은 사람들의 독도에 대한 인식을 좋게 할 수 있는 좋은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재빨리 학술 연구 자료를 기재하여 독도를 위해 발자취를 늘려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실시하고 있는 기사 정리 및 연구 활동을 계속한다면 좋은 민간단체가 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한다.

## 사. 독도사랑협회

### 주요 활동

1.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정보 설명 및 조사

“대한민국은 다케시마로 알려진, 일본 해안의 도서에 대하여 영토권을 상정하였음. 일본 정부는 일본의 영토임에 의문이 없는 이 도서에 대한 어떠한 가정이나 청구도 인정하지 않는다.”를 역사적 자료를 바탕으로 증명.

“독도 영유권 문제는 국제법의 기본원칙에 관한 해석을 포함하는 영유권 분쟁이니 만큼, 형평한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적인 법정에 회부하는 길밖에 없다. 이 분

쟁이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무엇보다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일본과 한국 두 날 정부가 서로 합의하여 이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맡길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라는 일본의 주장에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는 일본 정부의 제의는 사법 절차를 가장한 또 다른 허위의 시도의 불과하다. 대한민국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대한민국이 또한 국제재판을 통해 그 권리를 증명해야 할 이유가 없다.”로 반박하였음을 증명했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 분쟁에 대한 목적을 3가지로 요약하여 조사하였다.

#### \* 장기적인 전략에 바탕을 둔 외교적 대처법

- 분쟁을 장기적으로 두어 국제정세가 일본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날이 오는 순간 본격적으로 독도 침탈을 시작할 것.

#### \* 독도 문제를 센카쿠 제도와 쿠릴 열도 남단 도서 문제와 연결시키려는 의도

- 센카쿠 제도와 쿠릴 열도를 놓고 독도 문제에 강경하게 대응함으로써 다른 두 건의 분쟁 상대 국가에게 시위효과를 거둘 수 있음.

#### \*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 경계 설정을 위한 협상 대비

-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더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해 독도 문제를 건드렸음.

2. 독도의 정의, 독도의 가치, 독도 지명 등의 독도의 여러 가지 소개.

3.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확실히 하기 위한 신 한·일 어업협정 파기 서명운동.

####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과 일본의 입장>

##### 대한민국

-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기 때문에 영유권 분쟁 지역이 아니다.

- 1946년 1월 연합군 최고 사령관 맥아더가 울릉도, 제주도, 리앙쿠르열암(독도)를 일본에서 분리한다는 내용의 각서(SCAPIN 677호)를 일본 정부에 보내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확인함.

-

##### 일본

- 일본은 독도를 국제법상 적법한 일본 고유의 영토로 하고 있다.

- 러스크 서간에서 미국은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을 인정함.

#### 독도사랑협회에 대하여 느낀 점

민간단체로써 독도에 대해 많은 것을 조사하여 많은 국민들의 독도 인식에 대한 계몽을 위하여 독도 영유권 주장을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일본 주장을 반론하였으며 독도를 가치와 지명을 들어 소개한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독도를 정밀하게 표현하기 위한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 그리고 평창 올림픽 한반도기에 독도가 표기되지 않은 것에 대해 항의하고 시위를 했다는 것에 대해 독도사랑협회는 독도가 대한 민족의 영토라는 것임을 밝혀야한다는 입장을 확실히 표명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독도를 더욱 많은 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것이 안타깝다. 독도를 꼭 영유권 분쟁과 독도를 소개한다는 면에서만 봐야했을까? 독도의 자연 환경을 중점으로 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았을까? 독도를 지키기 위해 여러 가지 면에서 힘쓰며 노력하고 계시는 독도사랑협회 분들에게 감사를 느낀다. 하지만 청소년의 입장에서 봤을 때 독도를 평면적으로만 보고 입체적으로는 보지 못하였다는 게 조금 아쉽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조금 더 신중하게 독도의 여러 면을 조사하여 소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아. 독도중앙연맹

##### 주요 활동

1. 독도 수호 탐방

2002년부터 매년 100명 이상의 참가자들과 독도와 울릉도를 방문하여 역사와 자연환경을 탐방하고 독도수호결의대회 및 독도의 자연과 역사 특강으로 진행되

는 사업이다. 매년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현재까지 35차에 이르는 독도수호탐방 사업을 진행했다. 또한 독도 수호 탐방을 진행함과 동시에 독도수호결의문을 작성했다. 이는 독도수호결의문이다.

## 독도수호결의문

독도는 일본이 저지른 대한민국 침략의 최초의 희생지였다.  
독도는 몇 개의 바위덩어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독립의 표상이다.  
우리는 독도수호 결의를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1. 독도를 침략하는 자는 대한민국 국민의 완강한 저항을 작오하라.
2. 정부는 해양경찰이 아닌 **국군으로 독도를 수호하라.**
3. 독도에 동해안 어업전진기지를 건설하여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라.**
4. 독도명예시민 백만명 등록 운동으로 전 국민 가슴속에 **독도의 얼을 간직 하자.**

## 2. 독도 명예 특별시 선포

독도에 대한 일본의 간섭과 영토 분쟁이 점점 심화되자 독도 중앙 연맹을 중심으로 한 독도 민간단체들은 독도가 대한민국의 명예 특별시임을 선포하였다. 이는 독도 명예 특별시 발기선언문이다.

독도는 일본의 한국침략 최초의 희생지였다.  
독도는 단 몇 개의 바위섬이 아니라 대한민국 독립의 표상이요 상징이다.  
일본이 독도를 침략하려는 야욕을 분쇄하기 위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명명백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임을 만방에 선포한다.
2.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을 독도를 기점으로 선포하여 일본의 영토의 영터리 독도 기점 선포를 철회하도록 한다.
3. 신안일어업협정에서의 독도영유권 침해구분을 재협상하여 독도영유권 침해를 묵인한다.
4. 극도발위는 해양경찰이 아닌 **국군**이 담당하여야 한다.
5. 독도를 동해안의 어업전진기지로 개발하여 경제인구가 상주하도록한다.
6. 독도를 수호한 안용복 장군, 홍승철 대장 등 33인의 동상을 건립하여 독도 수호 의지를 다진다.
7. 독도박물관을 서울에 건립토록 한다.
8. 동도와 서도의 교통로(다리)를 개설하여 서도에 상륙을 시도하는 일본 육군을 퇴치하도록 한다.
9. 독도에 청소년 해양훈련장을 건립하여 청소년들에게 동해의 거친 파도를 극복하는 개척 함양정신을 고취한다.
10. 독도 명예특별시민 100만명 모집 운동을 전개하여 잠재적인 주민등록이전의 불편함이 없이 독도명예특별시민이 행정을 편리하여 독도수호에 공헌이 되도록 한다.

2007년 1월 1일



독도명예특별시장 시장 이 수 광  
독도중앙연맹총재

## 3. 독도의 날 선포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점점 치밀해지고 가속화되자 이수광 총재를 비롯한 여러 인물들은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선포하였다. 1900년 10월 25일, 즉 칙령 제41호 반포일을 독도의 날로 선포한 것이다. 이는 독도의 날 선포문이다.



## 독도의 날 선포문

10월 25일

우리는 우리의 땅 독도를 사랑하는 온 겨레의 뜻을 받들고 정성음모아 10월 25일이 독도의 날임을 내외에 선포하는 바이다.  
이 날은 역사적으로는 1900년 대한제국의 고종황제께서 독도를 울릉군에 편입시키는 칙령 제41호를 반포한 날이다.  
역사에 동해물이 다 마르고 백두산이 다 닳도록 이 날을 후세에 길이 전하라.  
겨레여 이 날을 맞을 때 마다 독도를 기억하고 독도를 사랑하며 독도를 지켜 후손에게 물려줄 것을 엄숙히 다짐하자.  
아! 우리땅 독도에 이 날과 더불어 영원하라.

## '독도의 날' 제정·선포 발기인 33인

◆강덕동	◆강정채	◆김경렬	◆김석원	◆김영일	◆김홍래	◆김효은
◆남궁근	◆박관용	◆송선용	◆신상호	◆안상수	◆유영은	◆윤여준
◆이규환	◆이동건	◆이두식	◆이상무	◆이인규	◆이인정	◆이장희
◆이재후	◆이정락	◆이정린	◆이종구	◆이준구	◆이희창	◆장경준
◆정인균	◆정한조	◆최병선	◆현승일	◆홍일식	(가나다순)	

2007년 10월 25일



독도명예특별시장  
사단법인 독도중앙연맹총재

이 수 광



## 독도중앙연맹에 대해 느낀 점

독도중앙연맹은 전두환 군사정부가 집권한 이래, 이수광 총재님을 필두로 독도를 위해 정부보다도 활발히 활동하여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며 지금까지도 활동하고 있는,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간

단체일 것이다. 독도중앙연맹은 타 민간단체와는 달리 독도가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 그리고 독도는 왜 대한민국의 영토인지, 우리가 독도를 위해 할 수 있는 활동을 무엇이 있는지 등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독도가 대한의 영토라는 것을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한 청소년인 내 입장에서 독도중앙연맹은 확실하게 독도에 대한 국민이 계몽을 위해 아낌없이 자신들을 희생하며 활동했다라고 생각한다. 독도의 날을 선포한 것도 그들이요, 독도를 대한의 명예 특별시로 선정한 것도 정부의 도움 없이 오직 그들만이 해낸 업적이에요, 그리고 대한민국뿐만이 아닌 세계의 독도 계몽을 위해 외지의 사람들도 참여가 가능한 독도수호탐방을 실시하고 있지 않은가. 독도중앙연맹은 독도를 위하는 사람들만이 모여 결실을 맺은 단체라고 생각한다. 다만 아쉬운 점도 존재한다. 민간단체로서 사람들의 계몽을 주도하고 있으나 학술단체로서는 조금 아쉽다고 생각한다. 민간단체로서는 독도의 날 선포, 독도 명예 특별시 선포, 독도수호탐방 실시와 같은 자랑스러운 업적들을 만들었다. 물론 학술단체로서 학술 연구도 주도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자신들의 학술 연구를 사람들이 자세하게 알 수 없다는 것. 민간 활동도 중요하지만, 학술 연구 활동으로도 사람들을 충분히 계몽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독도중앙연맹을 쉽게 소개할 수 있는 SNS, 독도중앙연맹 사이트를 통해 학술 연구 자료를 기재하고 연맹의 입장까지 기재한다면 좋은 평가를 받고 독도를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자. 독도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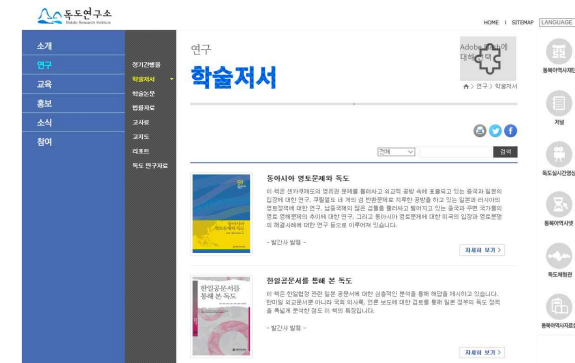
(설명문, 논문 등을 다국어 제작,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홍보 활동)

- 동해 명칭이 확립되고 사용되어져 온 역사적 근거 및 동해 명칭의 국제적 사용의 정당성에 대한 논리적 근거 제시, 왜 동해 수역이 일본해 단독표기가 아닌 최소한 동해와 일본해로 병기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포함.

- 활동방법/ 독도 관련 사항에 대한 조사, 연구를 비롯하여 전략, 정책의 개발 및 건의, 타 단체와의 교류, 협력, 교육, 홍보, 그리고 관련 사업 추진함.

- 활동이념/ 다양한 사업과 연구를 통해 우리 주권의 상징인 독도에 대한 바른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동북아시아의 평화, 번영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독도 연구소에 대하여 느낀 점

독도연구소는 학술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며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 내용, 즉 정보들이 전문적인 내용이 많고, 그 안내문 또한 구체적인 분류와 설명이 되어있지 않다는 점에서 반크에 비해 일반인들에게 제공되는 정보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또한, 독도에 대한 자료만 나열하는 것은 독자들을 하여금 지루하게 느낄 수 있다. 자료를 배부하면서, 대중들 스스로가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연구자들의 당부나 개인적 견해 등도 나타내주면 좋을 것 같다.

## 차. 반크(VANK)

- 독도 홍보대사 활동, 홍보자료 제작, 공식선상의 표기 오류 정정

- 단장 박기태를 중심으로 여러 홍보활동 개시

- (2016. 06. 28~ 08.31) 반크, 전국의 중·고교생과 대학생 등 400명을 '글로벌 역사 외교 대사' 로 선발하여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이들에게 동해와 독도를 전 세계에 제대로 알리는 교육을 실시.  
박기태 단장과 재단 연구원들이 '동해·독도 글로벌 홍보' 특강 진행. 정보 오류를 발견, 바로 잡는 기법과 독도 및 일본 과거사 국제 홍보 전략 강의.

▲ '독도=일본 제국주의 과거사'라는 역사인식 해의 홍보

▲ 일본 과거사 문제를 독도와 연계시킨 동영상 수업 3개 교육, 보고서를 남

기는 동시에 영문 동영상을 SNS 교류로 외국인과 외국팬팔에게 소개

▲ 대학 도서관, 해외교과서, 웹사이트,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독도와 동해, 대한민국 역사 등과 관련한 오류를 찾아 정정

▲ 원어민 교수, 외국인 교환학생, 관광객 대상 독도·동해에 대한 자료 전달

- 활동방법/ 반크는 원래 한국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한국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 주는 사이버 관광가이드이자 사이버 외교사절단으로써 독도에 관해선 세계에 퍼진 독도에 대한 잘못된 정보, 오류 바로잡기, 독도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홍보물과 영상 제작 등을 실시함.

- 활동이념/ SNS와 인터넷을 통해 반크는 60억 인류를 대상으로 독도를 포함한 정치, 경제, 문화, 역사, 사회, 관광 등 한국의 이미지를 점진적으로 ‘친구의 나라’로 변화시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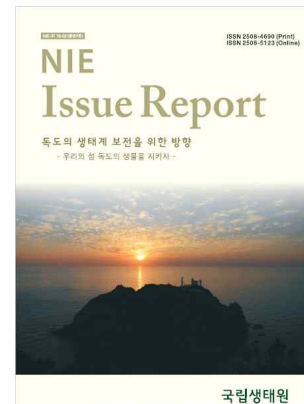
## 반크에 대하여 느낀 점

반크, 즉 사이버 외교사절단은 현대 한국 및 외국인이 접하기 쉬운 네트워크, SNS 등을 통해 타 연구기관의 자료와 고문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사실을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물과 영상의 형태로 제작해 알리는 일을 한다. 현대 사회에서는 인터넷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 점, SNS라는 접근성 높은 매체와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정보를 알린다는 점, 민간 외교관이라는 독특한 방식을 통한 활동이라는 점에서 현대 사회에 알맞은,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 카. 국립 생태원

(독도생태계 정밀조사/ 2016.09.22~2016.12.29)

-제목: 독도의 생태계 보전을 위한 방향



## - 활동내용

독도의 자연생태계에 대해 국립생태원은 ‘제2차 특정도서보전기본계획(환경부, 2015~2024)’에 근거하여 조사를 하고 있다. 또한 독도의 생태계를 5년 단위로 정밀 진단하는 조사를 2015년 4월부터 2016년 4월까지 4계절 동안 수행하였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 국립생태원은 독도의 자연생태계의 현황을 잘 파악하고 효율

적인 관리를 통해 보전대책을 수립하고자한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식물 62종, 조류 70종, 곤충 35종, 해양무척추동물 191종 및 해조류 230종 등 총 594종의 생물이 관찰되었다. 이번 정밀조사에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기록되는 생물 3종(해양무척추동물: 한손옆새우류, *Paranamixis* sp.;곧은손참옆새우류, *Peramphithoe* sp.; 민수염참옆새우류, *Sunamphitoe* sp.)을 확인하였다. 그동안의 독도 생태계 관련 조사 연구 자료에는 보고되지 않았던 수지상근균균 5종과 해조류 64종, 해양무척추동물 48종, 식물 3종, 곤충 3종, 조류 1종 등 신규로 발굴한 생물종은 총 124종에 이른다.

## - 독도 생태계에 대한 보고서 작성

국립 생태원: 2017년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독도 생태계 현황을 세밀화하로 그린 ‘독도의 생태계’ 자료집을 발간, 이를 교육자료로 활용했다. 자료집은 국립 생태원의 ‘제2차 특정도서보전기본계획(2015~2024)의 조사 자료 활용’이다.

### II. 독도 생태계 연구동향

- 독도 자생생물 연구로 생물주권 확립(한경부, 국립생물자원관)
  - 독도에 자생하는 생물종·독특 구조 및 종자 도감 등 발간
    - ↳ 독도의 전체 생물상 1,751종의 종 목록과 구조 및 종자 도감을 발간
    - ↳ 독도의 관목식물, 곤충, 무척추동물(연체동물), 독도해파랑고기 등 생태도감 발간
    - ↳ 독도종자 확보사업을 통해 ‘독도식물종자’ 발간
      - ↳ 독도에서 생육하는 야생식물 51종의 형태와 종자의 내·외부 모양 및 색인화 정보 발간



### III. 독도 생태계 현황

#### 1. 생태조사 및 방법

- 독도 생태계 조사는 5년 단위 정밀조사 및 1년 단위 모니터링 실시
  - ↳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조)기(조사) 등
  - ↳ 제2차 특정도서보전기본계획(한경부, 2014.12)

#### 독도 생태계 정밀조사 및 모니터링 추진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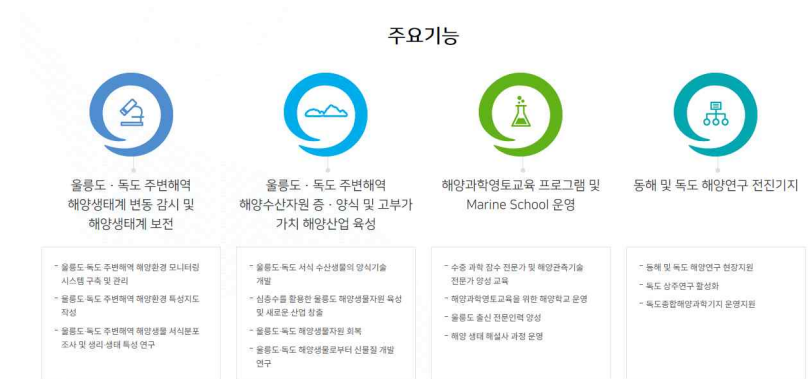
구분	조사년도	조사분야	추진기관
정밀조사	2008~2009	지형·경관, 식물, 동물상, 무척추, 조류, 곤충, 해조류, 해안무척추동물, IT	국립생물자원관
	2010~2011	지형·수질, 식물, 동물상, 무척추, 조류, 곤충, 해조류, 해안무척추동물	대구가톨릭대
	2015~2016	지형·경관, 식물, 동물상(이태식물 포함), 무척추, 조류, 곤충, 공룡(조류)등, 독도, 해안무척추동물	국립생태원
	2011~2014	지형·지질, 식물, 동물상, 조류, 곤충, 해안무척추동물, 수질, 지질환경	대구가톨릭대

속적인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또, 국립생태원에는 독도 관련 연구 진행 상황 등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는 방법이 부재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 타 단체들이 활용하는 방식을 통해 자료들로의 접근성을 높이면 좋을 것 같다.

다. 한국해양연구원 (KIOST 동해연구소)

(독도 자원, 생태계, 해저지질자원조사/2006~2014)



### 국립 생태원에 대하여 느낀 점

‘독도의 생태계’는 독도의 생물종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사계절에 따른 식물의 변화양상, 독도의 다양한 지형과 경관 등을 알기 쉽게 소개했다. 또한 전국 의 지자체, 학교, 도서관, 국립 생태원 누리집 생태자료실에도 11월 초부터 배포되어 연구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쉽게 열람할 수 있다. 또한 연구원들의 독도 생태계에 대한 교육 또한 실시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료집을 발간할 것이라는 점은 환영할 만한 일이나 독도에 대한 연구를 중점으로 수행하는 연구진이 따로 없다는 것이 아쉬웠다. 전담 부서를 통해 더 질 좋고 지

### 다중빔 음향 측심기를 이용한 독도 동도와 서도 남부 연안 해저지형 비교 분석

Comparative Analysis of Bathymetry in the Dokdo and Seodo, Dokdo using Multibeam Echosounder System

- 본 연구에서는 독도, 동도와 서도 연안에서 정밀 해저 지형과 해저면 영상 자료를 획득하여 해수면 아래에서 나타나는 해저 지형 및 해저면 환경 특성을 비교·분석하였다

## 독도 연안 해저 지구물리 자료의 통합 중첩 주제도 작성 연구

A Study on Integrated Visualization and Mapping Techniques using the Geophysical Results of the coastal area of the Dokdo in the East Sea

- 본 연구에서는 독도 연안의 정밀 해저 지형도, 해저면 영상도와 고해상도 수중 영상 자료 등을 이용한 맵핑 기법을 활용하여, 통합 이미지화 및 3차원 중첩 주제도 작성 연구를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독도 연안 환경과 같이 불규칙하고 다양한 외부 환경 변화 요소에 노출된 해저면 환경의 현재 해저면 환경 특성을 파악하고 모니터링을 위한 자료로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자료의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 향후에 지속적인 자료 축적을 수행하고 3차원 중첩 주제도 작성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 독도 인근해역 동물플랑크톤 장기간 특성

Long-term variation of zooplankton around Dokdo in the East Sea

-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동해 독도 인근해역에서 동물플랑크톤 군집의 변동특성을 조사하였다.

## 동해 울릉도-독도해역에서 질소, 인, 철 첨가실험에 따른 식물플랑크톤의 성장 및 군집반응

Growth and community response of phytoplankton by N, P and Fe nutrient addition in around water of Ulleungdo and Dokdo in East Sea

###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동해연구소)에 대하여 느낀 점

KIOST 동해연구소는 2009년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속기관으로써 울릉도, 독도 주변해역 해양생태계 변동 감시 및 해양생태계 보전, 울릉도 독도 주변해역 해양 수산자원 증/양식 및 고부가가치 해양 산업 육성, 해양과학영토교육 프로그램 및 Marine school 운영, 독도 상주 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울릉도 독도 해양연구 전진기지 등을 수행한다. 독도에 대한 사이트를 따로 운영하고, 관련 연구도 진행하면서 홈페이지에 연구 결과를 게재하는 등 활발히 활동한

다. 하지만 정작 그 관련 논문 등이 요약적으로만 설명이 되어있고, 구체적인 논문의 내용이 발표되어 있지 않은 점이 아쉬웠다. 또한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기자 활동이 있었지만 조금 더 활성화되고, 주기적으로 그 내용을 게시한다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 3. 양정의 노력

### 가. 활동의 장

#### 1) 독도 체험관 및 서울 인근 박물관 방문

우리의 주목표는 '미래의 독도를 위한 우리의 방안'이라는 소주제를 실현하기 위해 독도를 다양한 관점으로 탐구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독도를 수호하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배움의 장을 모색하던 중 독도체험관이 시민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꾸준히 변화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독도를 알리는 데 앞장서는 곳



으로 많은 정보를 얻고 체험하기에 적합하다는 판단을 하여 방문하였다. 전시실을 바탕으로 자연환경, 독도의 역사, 현재의 독도 등을 관람했으며 활동책자, 4D영상, 독도 모형 등을 체험하였다. 이를 통해 독도 관련 지식을 다시금 확고히 정립할 수 있었으며, 인간의 활동, 청소년 활동 등으로 방향을 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후에 우리는 안중근 기념관과 서울역사박물관에 방문하여 전시관과 여러 프로그램을 탐구하며 독도를 시민들에게, 청소년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릴 방법을 회의를 통해 연구해 보았다. 결과적으로 다양한 매체를 적극 활용한 캠페인과 대중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 2) 동아리 연합 활동(건축 및 토론)

저희는 독도 체험활동을 하면서 조금 더 폭넓고 깊이 있는 활동을 위해서 다른 동아리와의 연합활동을 생각했다, 그때 생각난 동아리가 우리역사탐구반이었다. 우리역사탐구반과는 2가지 활동을 같이했다. 먼저 20xx년 xx월 xx일 저희는 함께 독도체험관을 방문했다. 독도체험관은 독도에 대한 역사적, 자연적 정보들을 담



고 있는 곳이다. 이곳에서 저희는 먼저 이곳에 있는 전시물을 보고 해설을 들으며 독도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배웠고 그 다음 독도가 어떤 곳인지 4d영상과 게임을 통해 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었다. 이렇게 타 동아리와 특히 역사에 관련된 동아리와 함께 독도체험관에 감으로서 저희는 역사 동아리 친구들의 다양한 생각과 관점에 대해 알아볼 수 있어 (저희의 계획)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었다. 그리고 역사 동아리 학생들은 체험을 통해 독도에 대한 관심을 키워나갈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독도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듣고 배움으로서 독도가 왜 한국 땅인지에 관한 정확한 근거들을 말 할 수 있게 되었다.

2번째로 저희와 우리역사탐구반은 독도에 관한 토론을 준비하였다. 토론을 준비하게 된 이유는 먼저 역사동아리 학생들과의 토론을 통해 독도가 한국 땅인 이유에 대해 더 다양한 주장을 들어보고 싶었고 두 번째로는 역사 동아리 친구들도 토론을 준비하면서 독도에 대해 더 알아가고 고민해 보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토론은 독도는 한국 땅인 근거와 일본 땅인 근거로 팀을 나눠 진행하였는데, 이렇게 팀을 나눈 이유는 한국과 일본 양측의 주장을 모두 고려하고 생각해 봄으로써 왜 독도가 한국 땅인가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하기 위해서였다. 먼저 토론에서 한국 측의 주장은 크게 3가지였다.

1. 여러 가지 고지도, 고대의 기록이 증명하듯 독도는 한국의 땅이다.
2. 일본은 2차 세계대전 패전국이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기에 강제로 빼앗았던 독도를 반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3. 독도는 한국이 실효지배 해왔다.

반면 일본측 주장을 맡은 학생들은 자신들만의 주장도 했지만 한국 측에 대한 반박이 상당히 많았다. 그 역시 크게 3가지였다 이 활동을 통해서 양측 모두 독도가 한국 땅인 이유에 대해 심도 깊은 고민을 할 수 있었다.

1. 한국 측의 고지도와 기록에는 오류가 상당하다.
2. 일본은 2차 세계대전 패전국으로서 전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지만 독도를 일본의 땅으로 삼은 것은 1905년 을사조약 이전이므로 이는 식민 지배와는 관련이 없다.
3. 독도는 한국이 실효지배 하지 않았고 도리어 한국은 역사적으로 독도를 경시했다.



### 3) 캠페인

(주제: 독도수호방안 및 청소년 희망 독도수업, 독도 알리기)

독도를 알리며 독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설문과 독도 알리기를 진행

독도 수호방안, 독도 관련 교내 활동 설문과 독도 알리기 캠페인을 진행하여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증명하는 가장 명확한 증거들을 대중들에게 알리고 설문을 통해 그들의 견해를 조사하였다. 2주간 진행하였으며 평일에는 교내에서 주말에는 학교 인근 지역에서 활동하였다. 등교 시간 7시 30분부터 8시까지 정문과 후문에서, 점심시간 12시 40분부터 1시까지 식당 앞에서 진행하였고 주말에는 학교 인근 지역인 파리공원과 목마공원, 백화점 인근 광장에서 진행하였다. 설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를 바탕으로 교내에서 강연과 영상 시청 활동을 진행하였다.



### 독도수호방안 설문

응답자: 457 명

1. 민간단체 조직: 63 명
2. 독도 교육: 123 명
3. 문화 사업 확대: 66 명
4. 외교 강화: 189 명
5. 국가적 수호 운동 전개: 16 명

### 청소년 희망 독도수업

응답자: 302 명

1. 강연: 108 명
2. 체험 책자: 72 명
3. 견학: 42 명
4. 영상 시청: 80 명

### 4) 청소년 희망 독도 수업 교내 지식채널e 방영

캠페인 설문 결과를 통해 지식채널e 방영과 강연 활동을 진행하였다. 지식채널e 우편번호 799~805, 1~96번지를 양정고등학교 명상의 시간(여피지기)때, 방영하여 양정고 학생들이 독도에 대한 기본 지식을 다시금 되돌아 볼 수 있었다.

### 5) 독도 UCC 제작

독도가 명백한 한국의 영토임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을 다양한 분야{역사, 지리, 사회(실효적 지배)}의 핵심 내용을 추려 대중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정리, '독수청명'이 느낀 독도의 현주소와 독도 수호에 전념하는 민간단체들을 대중들에게 홍보, 이를 UCC영상물로 제작함.



## 나. 소통의 장

### 1) 인터뷰

독도를 수호하기 위해서 전개할 수 있는 활동에는 다양한 활동이 있다. 우리는 독도의 가치와 생태계, 독도의 역사와 우리의 명백한 증거들을 학습하고 이를 보다 쉽게 정리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여기서 나아가 소통의 장을 열어 여러 독도에 대한 세계관을 공유하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소통 대상으로 정치외교학과 대학생, 독도 민간단체 총재, 일본인 대학생, 고등학생을 지정하였다.

#### 가) 대학생 인터뷰

서울 인근 대학의 정치외교학과 대학생들을 섭외하여 독도에 대한 일본의 태도와 독도에 대해 나아갈 방안, 대학생의 독도에 대한 견해 등을 인터뷰를 통해 질문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독도에 대한 일본의 태도는?

일단 일본이 독도를 먹으려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째는 배타적 경제수역을 확장하기 위한 영해와 배타적 경제 수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독도를 먹으려는 거 같고요, 둘째는 아마 옛날 러일전쟁 시기부터 나왔던 이야기인데 군사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거기에 레이더 기지를 만들거나 하면 중국, 러시아, 한국까지 모두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리상으로는 일본에게 가장 이점이 되는 게 독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 - 독도 나아갈 방안은?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마 일본 내부에서 그러한 인식의 변화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본 국민들이 이제 독도가 왜 한국 땅인지를 알게 되는, 그에 따라서 일본 국민들의 정부인 그 일본 정부도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일본 정부가 바뀌면 바로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도 사라지기 때문이죠.

#### - 대학생, 독도에 관한 견해(1):

초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독도에 대한 그런 수업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그러한 수업의 요점은 바로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인식을 각자에게 심어주는 거였죠. 대학생들이 아마 독도에 대해서 한국 땅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다는 것은 바로 초중고등학교 때 그런 수업들을 들으면서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게 된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독도 수업을 한다고 해서 또한 그런 독도 수업이 제대로 되었다고 해서 지금 현재 대학생들을 봤을 때 독도가 왜 한국 땅인지, 그냥 옛날부터 우리나라가 점령하고 있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현재 독도에 대한 수업의 한계는 그냥 우리가 기본적인 인식들, 독도는 한국 땅으로 만들게 하는 것이 그게 한계였다고 생각합니다.

#### - 대학생, 독도 대한 견해(2):

그래서 아마 지금 대학생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3개 학교에 걸쳐서 독도가 왜 한국 땅인지 그런 역사적인 자료들과 아님 워 국제법적인 근거와 워 샌프란시스코 조약, scarpin 677호 그런 증거들을 통해서 이렇게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정리하자면, 일본은 국가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독도를 차지하려는 것이고 독도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일본 정부를 상대하는 것보다는 일본 국민들이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겼다. 또한 교육에 있어 독도가 한국의 영토인 여러 근거를 학습하고 이를 서로 소통하며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겼다.



나) 성명: 이수광

소속: 독도중앙연맹

안중근 홍보대사, 독도명예특별시장,  
4.19혁명 장학재단 이사장

독도를 알리고 홍보하는 활동 등을 보완하고 더 다양하게 발전시키기 위해 현재 활동 중인 민간단체를 인터뷰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독도 수호를 위해 실질적으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독도 관련 민간단체를 조사하여,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독도 수호에 나섰고 지금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독도중앙연맹에 협조를 구해 이수광 총재와의 인터뷰를 가졌다. 독도 관련 민간단체의 동향과 일본의 태도와 청소년들이 가능한 수호 활동 등을 인터뷰를 통해 질문 하였다.

‘독수청명’ - 이수광 박사님과 인터뷰

#### - 독도중앙연맹에서 어떻게 독도수호활동을 전개하셨나요?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1년부터 현재까지 여러 독도 문제에 참여하였습니다.

독도수호활동 전개 이후로 울릉도, 독도학술단체를 창설하였으며 또한 독도 해양 동식물에 관해 좀 더 자세하게 조사하기 위해 해양탐사팀장 직위를 맡기도 했습니다. 울릉도, 독도 해저지형이 전체적으로 제대로 명시되어있지 않아 예전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국내 최초로 울릉도 해저 지형을 발표했습니다. 1986년에는 ‘해양소년단’ 단체를 설립했고, 동시에 독도중앙연맹에서 울릉도, 독도, 동해 관련 학술적 내용 연구를 실시했습니다. 이후 서울대학교 해양연구소장으로 11년 활동했습니다. 일본이 독도를 다케시마로 지칭하고 시마네 현으로 편입한 이후 저희는 독도 수호대와 협력하여 칙령 제41호 반포일인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독도를 명예특별시로 선포하였죠. 이후 독도에 대한 토속지명을 발견하고 이것에 대한 학술연구 논문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논문자료는 후에 독도 영토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 - 독도 수호를 위해 청소년들이 해볼 수 있는 활동은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청소년을 비롯한 많은 젊은 친구들이 독도가 그저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생각하거나 심지어는 “독도가 어디죠?”, “독도가 뭐죠?”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독도는 예전부터 우리나라 울릉도의 앞마당이었죠, 제대로 정리하자면 울릉도의 부속도서라고나 할까요?(웃음) 그렇기에 자랑스러운 우리 영토인 독도 수호를 위해 우리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독도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조사하여 노력해보는 것, 그리고 독도 수호 탐방 활동에 대해 알아보고 참가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독도에 직접 상륙해보거나... 독도에 대한 강연을 듣는 것도 좋겠군요. 그리고 각 학교에서 따로 독도 활동을 실시하거나 청소년독도연맹 단체를 학교마다 설립하여 활동하는 것도 관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양정고처럼 말이죠.

#### - 일본이 곳곳에서 영토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데, 유독 독도에 대하여 영유권을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일본이 적극적으로 영토 확장을 위해 영토 분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것은 일본 정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작 일본 국민들은 영토 분쟁에 관심이 많이 없습니다. 독도는 특히 더욱 그렇죠. 그리고 정부 내에서도 일본 우익 정치인들이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뿐이죠. 조금 주제를 벗어난 이야기를 하자면 그 우익 세력 정치인들은 100년 정도가 지나면 기득권을 상실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의 입장을 말씀드리자면 2차 세계 대전 이후 1952년에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맺었을 때, 1차부터 5차 조약까지는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에 포함되어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는 짐작이 힘들지만 7차 조약부터는 독도가 일본 영토에 포함되었죠. 그렇지만 다행히도 연합국 측의 영국과 호주가 반대하여 독도가 다시 일본 영토에서 제외되었습니다. “1905년 독도 합병 당시에 항의가 없었으므로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원래부터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명시했다.”가 이유였죠.

**- 독도 관련 민간단체들의 최근 동향은 어떤가요?**

같은 ‘독도’라는 범주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독도중앙연맹의 총재인 저로서도 타 민간단체의 동향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독도중앙연맹과 기타 민간단체의 기본적인 성질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예상을 하자면 아마도 독도에 대한 정보 수집, 독도 관련 강연, 독도 관련 상품 제작...그리고 유포를 통하여 독도에 대한 인식 확산 등이 있겠네요. 그리고 자세하게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정부의 도움 없이 활동하는 민간단체는 약 300개에서 400개의 단체가 활동하는 것으로 통계가 나타났습니다.

**- 독도가 한국 영토인 근거가 무엇일까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역사적으로 일본이 근대 이전의 역사에서 독도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한 내역이 전무합니다. 근대라고 볼 수 있는 1905년부터 이를 주장하였죠. 여러분도 아다시피 독도는 신라의 우산도 정벌 이후 계속 한반도의 영토였습니다. 이후 2차 세계 대전 연합국 최고사령부 최고 각서에 울릉도, 독도를 한국에 반환했죠. 그 이후에는 일본인이 독도에 상륙한 경험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 영토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겠죠.

**- 저희 양정고 참가팀에게 꼭 권유해주고 싶은 독도수호활동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독도중앙연맹에서 실시하고 있는 독도 수호 탐방 활동에 참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독도에 대한 역사, 가치를 비롯한 어느 것이라도 공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독도에 대한 인식도 확산해서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네요.

**- 청소년들에게 독도 수호 활동과 관련하여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양정고뿐만 아니라 전국의 각 학교마다 독도 수호 탐방 활동과 같은 활동을 실시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래의 학자가 될 수 있는 우리 청소년

들이 독도에 대한 학술 연구를 지속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는 독도를 지키기 위해 미래가 그 역할을 계승하여 실시하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일본인 대학생 인터뷰**

2018년 2월에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방문한 ‘나눔의 집’에서 한국 고등학생으로 세계평화와 역사라는 주제로 한국을 현장조사 중인 일본인 대학생의 인터뷰에 참여 이후 지속적인 소통 후에 이번 대회를 준비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견해를 인터뷰하게 되었다. ‘독도는 누구의 영토인가?’, 독도 등의 일본 영토 분쟁의 이유, 근처 지인들의 독도 견해 등을 질문으로 요청하였다.

**- 독도는 누구의 영토인가?**

“솔직히 말해서 독도에 대한 나의 생각은 그 섬이 어느 나라의 영토인지는 별로 신경쓰지 않는다는 것이다. 역사와 진실이 옳고 그른지는 “어느 곳으로부터“ 당신이 그것을 바라보는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에서 어느 관점으로 보는지에 따라 그것은 진실이 될 수도 거짓이 될 수 도 있는 것이다.”

**- 독도 등의 일본 영토 분쟁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독도 관련 이야기는 일본에서도 매우 민감한 이야기다. 정말 미안하지만, 이에 대해 답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다.”

**- 근처 지인들의 독도 견해를 알 수 있을까요?**

“ 몇몇 친구들은 독도에 대해 잘 모른다. 뉴스에서 요즘 한국과 갈등이 더 심화된 문제라는 정도이다. 나의 견해는 이렇다. 우리가 독도를 공동으로 소유할 수 없는 지 궁금하다. 공동으로 얻을 이익이 있을 것이며, 우리는 독도를 통해 문화를 교류하고 소통의 시간을 가지면서 논쟁보다는 소통으로... 나아가 동아시아 공동체로 나라들이 결합하고 과거의 역사를 함께 풀어가며 협력을 하여 공동체로서 어시아를 지켜야 한다고 강력하게 믿고 있다. 독도 문제는 실제로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도울 것이라고 강력히 믿고 있다.”

- 독도에 대한 정보의 접근성은 어떠한가요?

(응답 없음)

- 독도가 일본의 영토임을, 한국의 영토임을 증명하는 역사적 사료를 접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응답 없음)



## 2) 교내 강연

캠페인 설문 결과에 따라 교내에서 강연을 진행하였다. 교실에서 지원자 30여명을 받아 2시간 동안 진행하였다. 강연 후 질의응답 시간과 활동지 작성 시간을 가졌다. 강연을 통해 독도에 대한 기본 지식과 독도가 한국의 영토인 명백한 증거들 나아가 일본의 주장을 반박하여 설명하였고 일본의 이러한 태도에 대한 이유로 영토 영유권의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목차는 다음과 같다.

## <목 차>

1. 독도, 아름다운 우리 땅
2. 영유권 문제의 독도
3. 우리 땅인 이유
4.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입증할 수 있는가?
5. 양정의 활동
6. 결론 및 질의응답



## 다. 탐구의 장

### 1) 민간단체 독도 수호에 대한 탐구

인터뷰 및 인터넷 조사를 통해 독도 민간단체들의 독자적인 독도 수호 활동 방향과 각각의 특성을 정리하여 우리의 견해와 일반화 가능한 독도 사랑 활동을 기획함.



-이수광독도중앙연맹총재 인터뷰



-독도중앙연맹 및 독도박물관 홍보물

## 2) 독도체험 자료집 제작

독도에 대한 관찰을 비롯해 대한민국의 고유의 영토임을 증명하기 위해 역사적 사료를 분석하고 일본의 주장을 반박하며 다양한 민간 및 국가의 노력에 대해 탐구한 결과를 자료집 형식으로 정리해 보았다.

독도 사랑 실천을 위한  
100일 간의 기록을 말하다?  
- 청소년을 위한 독도를 비추는 거울 -



양정고등학교 우리역사탐구반

지도교사 : 이두영 선생님  
연구자별 : 김슬빈, 원우승, 강명준, 권호진, 우시영



##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독도** -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화산 섬 (한국의 섬 - 경상남도·경상북도, 2016. 7. 25., 지리와 역사)

외교부독도 [http://dokdo.mofa.go.kr/kor/include/print\\_faq.jsp?class\\_faq=q12](http://dokdo.mofa.go.kr/kor/include/print_faq.jsp?class_faq=q12)

독도수호대 <http://www.tokdo.kr/detail.php?number=972&thread=24r07>

네이버포스트 독도, 한국땅 증명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8495531&memberNo=28403857>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 고대사 숨은 이야기

일본 외무청

동북아 역사넷 [http://contents.nahf.or.kr/id/NAHF.eddok\\_003\\_0020\\_0020](http://contents.nahf.or.kr/id/NAHF.eddok_003_0020_0020)

나무위키 등등

## 3) 일본교과서 왜곡 탐구

국제 교류 중인 스바루 고등학교에서 일본 역사교과서 4권을 받아 독도와 동해를 다룬 부분을 집중적으로 탐구함. 한국과 일본이 함께 나오는 지도에서는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였고, 일본 교과서에 나오는 세계지도나 일본 전도에도 독도는 표기되지 않았으며, 한반도 지도에는 울릉도가 표기 된 지도는 하나 뿐이었다. 독도를 직접 언급하거나 독도와 관련된 역사적 사료를 제시한 교과서는 없었다.

